

이락이네에서 같이 살아요 :)

빈집-이락이네에서 새로운 장기투숙객을 찾고 있습니다.

위치

이락이네는 해방촌 술집밥집카페가 다소 번잡하게 모인 거리 끝, 해방촌 오거리로 올라가는 마의 오르막길 딱 초입에 위치해있습니다.(구 넓은집-공부집-주력발전소 집입니다) 2개 있는 빈집 중 하나인 이락이네는 반지하에서부터 4층 옥탑까지 5가구가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이에요. 143, 406등 종로나 강남으로 가는 버스정류소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 1분만 걸으면 녹사평역이나 숙대입구, 남영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슬리퍼 짝짝 끌고 2분만 걸으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아이스크림 500원하는 마트도 있어요 :)

사실 집 오는 길에 오르막이 없다는 것만 해도 천혜의 환경.

공간

화장실은 세탁기가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큰 화장실 하나와 건식으로 사용하는 작은 화장실 총 2개이고 모든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방은 2층 침대가 하나씩 놓인 방 두 개와 2층 침대가 2개 놓인 방 하나 총 3개입니다. 요리하기에 좁지 않은 부엌과 널찍한 테이블이 놓인 거실이 있어요. 부엌은 최근에 김치를 담근 이후 2개의 냉장고가 가동 중이에요. 유독 더운 올해 여름 거실에 에어컨을 들이기도 했어요.

다만 남산 3호 터널로 가는 도로가 인접해있어 집안으로 들리는 차 소리가 꽤 큰 편입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분명 신경 쓰이실 거 예요.

구성원

이 글을 쓰는 현재(18년 8월) 6명의 장기투숙객이 있지만, 구성원의 변동사항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어찌되었든 최소 4명의 구성원에 한 마리의 장기투숙고양이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는 등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게 힘든 여건이신 분이면 거주하는 게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

분담금

공간에 대한 이용금, 공과금, 기본적인 식재료, 최소 생활용품 구매비용을 포함해 각 월 25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25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꽤 잘 살아요 :-)

알아야 할 것

- 월 25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있어요.
- 거실과 부엌-공동구역은 요일마다 맡아서 청소하고 그 외 화장실, 방과 같은 담당구역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약속하고 있어요.
- 일주일에 한번 집회의가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의 한주가 어땠는지 나누고, 맡은 구역의 청소상황을 체크하고 회계 상황을 공유하고, 그 주 집에서 논의할 안건을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빈집의 이락이네 카테고리 회의록을 참고 해주세요!
- 한 달에 한번 집들(소담, 이락이네)이 모이는 마을회의가 있습니다.
- 나이, 학벌, 출신지 등 서로에 대한 인적사항을 초면에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하며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알면 좋은 것

- 모두가 내는 집 비로는 육류구매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빈집 내에서는 다양한 모임, 동아리, 공부자리가 있습니다. 참여가 필수적인건 아니지만, 관심사가 맞달으면 함께 어울리는 건 어떨까요 :)?
- 채식을 하는 분등을 포함해 여러모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산 구성원과 마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주로 생활하던 터전에서 좀 더 많은 섬세함과 감수성을 갖춰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 보통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생각했을 때, 개인실 혹은 다인실이라도 지정된 개인공간을 배정 받는 게 익숙할 거 예요. 하지만 빈집은 개인실 형식으로 공간배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여기는 내 방이에요’라고 말할 일이, 이락이네에서는 없을 거 예요. 잠자리정도는 지정되어 있다고 어떻게 할 순 있지만 그것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공간의 사유화를 지양하는 곳, 그런 생활을 상상해보셨나요? 꽤 잘 살아진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섯 번 뒹굴면 벽에서 벽으로 달는 공간(원룸)을 사유하던 때 보다 훨씬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겠지요. 부족한 글 솜씨로 몇 줄 쓴다 해서 감히 못 담을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도 있을 거 예요. 다만 빈집은 당신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부딪히고 겪으며 배워도 어떤 탈이나 손해가 아닐 안전한 공간을 지향합니다.